



김일성김정일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평양

주체 109
(2020)년



차 례

영원한 태양의 모습 2

혁명일화

탄생일에 받으신 명예공학박사칭호 4

절절한 소망을 담아 5

도서 《김일성주석회고기》(2)중에서

피로써 맺어진 위대한 친선 6

도서 《위인 김정일》중에서

시대의 향도자 9

뜨거운 경모, 다함없는 지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올린 선물 1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린 선물 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훈장보존실 1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훈장보존실 15

혁명일화

꼭 하고싶으셨던 일 16

인류가 드리는 최고의 지성 17

조선로동당창건 75돐 성대히 경축 20

기금활동소식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참가자들 다함없는 경모의 정 표시 28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참가자들 숭고한 경의 표시 29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 3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참가자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올리였다 35

최룡해동지가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을 만났다 36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관람, 여러곳 참관 37

반향

주체의 최고성지로 달리는 인류의 마음 42

심장깊이 새겨지는 나라이다 44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은 끝없이 흐른다 45

상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48



나라의 륭성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마다가스까르민주주의공화국
 디디에 라찌라까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시였다
 주체74(1985)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캄보디아왕국 노로돔
 시하누크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시였다
 주체93(200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피델 까스트로 루쓰위원장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시였다
주체75(1986)년 3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적도기네공화국 오비앙 느게마 트바쑸고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혁명일화

탄생일에 받으신 명예공학박사칭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54(1965)년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방문하신 기간에 탄생 53돛을 맞이하게 되시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의 발기와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종합대학 학위학직수여위원회의 공동결정으로 그이께 명예공학박사칭호를 수여해드리는 의식이 국가궁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인도네시아종합대학 총장은 1965년 4월 15일 김일성원수각하께 명예공학박사칭호를 수여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기술혁명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주석의 사상과 그 구현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은 매우 매혹적인 현상이며 기적이라고 높이 찬양하였다.

혁명일화

절절한 소망을 담아

당의 지도리념은 주체사상, 당의 지도방법은 주체의 요구대로!
이것은 베닌혁명당(당시)의 창건자였던 알리 후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굳은 신념이었다. 그는 자기 당을 조선로동당처럼 건설하고 발전시키려고 적극 노력하였다. 하기에 그는 자기 당원들의 절절한 소망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베닌혁명당의 명예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그이께 드리는 《베닌혁명당 명예위

원장증서》를 전달하면서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자기 당의 명예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리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는 김정일각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령도예술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령도하고계신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당이 평양선언에 서명한 정당으로서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는 당이라는것이다.》



피로써 맺어진 위대한 친선

주 위

(전호에서 계속)

당시 주석님께서서는 반일연합전선의 위력을 다시 한번 떨치기 위하여 라자구전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투에는 공헌영, 사충항, 채세영, 리삼협이 이끄는 반일부대들을 인입하기로 되어있었다. 아버지는 공헌영부대의 참모장이었다.

주석님과 아버지는 근 2년만에 또다시 항일을 위해 마주 앉아 라자구공격작전을 토의하였다.

라자구전투는 서산포대의 적들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하여련일 계속되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다리에는 이 전투에서 입은 심한 부상자리가 있었다. 3일째 되는 날 서산포대에서 쏜 포탄이 작전회의를 하는 곳으로 날아들어 아버지와 몇몇 반일부대지휘관들에게 중경상을 입히었다고 한다.

그러자 반일부대 대원들은 사기가 저락되어 라자구를 등지고 무질서하게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 김일성주석님의 찌렁찌렁한 음성이 전장에 울리었다.

《동무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산포대를 점

령하자! 혁명을 위하여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싸우자!》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싸창으로 적을 쏘아놓히면서 앞으로 돌진하시었다. 우박처럼 쏟아져내리는 기관총탄을 뚫고 주석님의 뒤를 따라 대원들이 땅을 걸어차고 내달렸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서산포대는 30분만에 점령되고 포대꼭대기에는 붉은기가 휘날리었다.

아버지는 중상당한 몸이었으나 두팔을 벌려 동요하는 자기 부대 병사들을 막아나서며 저 붉은기를 못보는가고 웨쳤다고 한다. 세차게 퍼덕이는 그 기발을 본 반일부대 병사들은 퇴각을 중지하고 합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육박하였으며 마침내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왕덕림부대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일본군에게 고스란히 내주었던 라자구에서 중조항일연합무력의 개가가 높이 울리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반일연합전선의 형성을 발기하시고 주도하시었던 김일성주석님에 대하여 깊은 존경을 가지고 회고하였으며 자기의 글에서도 《항일련군 제2군은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이였다. ...항일유격전쟁중 중조인민은 공동사

업을 위하여 선혈로 엮혀져있었다.》고 공동투쟁로정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중조항일무력의 련합을 높이 찬양하였다.

중조인민의 공동항일전사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단행하신 두차례의 북만원정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1930년대 전반기에 주로 안도, 왕청, 연길을 비롯한 동만과 조선북부 국경일대를 기본투쟁무대로 삼으시었다. 그러나 주석님께서서는 시종 북만의 항일무장부대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유지해오시였으며 1934년 10월과 1935년 여름 몸소 북만원정대를 이끄시고 로야령을 넘어오시여 포연탄우속에서 중조혁명가들사이의 전투적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시었다.

그 두차례의 북만원정은 모두 아버지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된것이라고 하였다.

라자구전투이후 20명가량의 반일병사들을 데리고 녕안지방으로 간 아버지는 그를 밀천으로 하여 녕안반일유격대를 조직하였다. 그후 이 부대에는 조선사람들로 구성된 유격대가 편입되었으며 평남양부대와도 통합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북호두를 중심으로 출몰하는 북만의 크고 작은 반일부대들이 다 녕안반일유격대를 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유격활동을 도저히 합법화할 수 없었다.

녕안지방의 혁명운동기세도 매우 저조하였다. 아버지는 이러한 난국에서 옳은 타개책을 찾아주실분은 오직 김일성주석님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동만에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하여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항일운동을 승승장구시켜나가는 김일성주석님께 북만혁명이 안고있는 고충을 풀어주실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띄워보냈다. 주석님께서 품들여 꾸

려놓으신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이 일제의 《위공》작전과 좌경배타주의자들의 반《민생단》투쟁바람에 안팎으로 위협을 받고있던 그때 도움을 드릴 대신 오히려 방조를 요청하자니 아버지로서는 참으로 죄송스러웠다고 한다.

아버지의 요청을 매우 심중하게 받아들이신 주석님께서서는 그에 응하는것을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시고 로야령의 장설을 헤치며 북만으로 찾아오시었다.

그때 아버지는 20~3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팔도하자근거지의 산막에서 병치료를 하고있었다.

그는 주석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 기뻐 지평이를 짊고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산막에서 퍼그나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나가 그이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많이 도와주소.》

아버지는 주석님의 손을 꼭 틀어잡고 절절한 기대를 담아 이렇게 말씀드렸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후일 아버지와 그의 상봉을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변으로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회고하시었다.

《이 상봉을 시발점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인공산주의자들이 령솔하는 유격부대들과의 전면적인 공동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주석님께서서는 아버지가 거처하는 산막에 이르시자 그의 부상자리부터 살펴보고 거기에 자신께서 구해가지고 오신 고약을 몸소 발라주시었다. 그 지성으로 아버지의 상처가 많이 나아지자 주석님께서서는 참나무를 잘 다스려 그의 키에 맞게 지평이를 만들어주시였으며 한쪽팔을 부축하고 걸음련습까지 시키시었다.

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하여 지평이를 짊지 않



시대의 향도자

(전호에서 계속)

대학졸업이후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 나날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시는 나날에 보여주신 숭고한 품모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사상리론활동을 전개해 나가시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자세와 립장은 그이께서 일찍부터 체질화하고 공고화하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어린시절부터 어머니의 혁명적인 교육교양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자각과 수령님의 혁명사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슴깊이 간직하시였다.

그이께서 주체42(1953)년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절대적신념을 지니시고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신것은 심원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혁명사상을 조직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학습하는 사업의 력사적시원으로서 그 결성목

적은 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조선혁명의 기둥으로 준비시키는데 있었다.

갓 10대에 이른 시기에 벌써 위대한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를 따라배우기 위한 연구소조를 조직한것과 같은 사실은 다른 위인들의 전기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소년들속에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받들며 빛내여나가는것을 학습과 탐구의 목표로 삼도록 하신것은 곧 자신에게 제기한 요구였고 우리 인민에게 제기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전후 사대와 교조를 완전히 청산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도 결연히 나서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기초건설은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사대와 교조를 생존방식으로 하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는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당들의 내정에 더욱 로골적으로 간섭하면서 저들의 패권주의를 실현하려고 꾀하였고 그에 편승하여 반당반혁

은 손으로 주석님을 그리안으면서 《김사령, 내 이 성의를 영원히 잊지 않겠소. 우리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김사령을 업고다니자고 할거요. 우리 절대 변심말고 항일대전에서 함께 싸워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그 나날에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침식을 같이하시면서 유격대의 활동을 적극화하고 북만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시였다. 두분은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고 유격대의 군사활동을 강화하는데서 북만혁명의 출로를 찾으시였다.

며칠후 북만원정대와 함께 아버지가 내여드리는 1개 소대가량의 병력을 거느리시고 팔도하자 근거지를 떠나신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경박호반의 석두하에서 중조공산주의자들의 형제적우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위력을 시위하는 공동투쟁의 첫 총성을 울리시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련전련승하시였다. 그 과정에 많은 반일부대들과 지방의 참군요망자들이 념안반일유격대에 인입되였다.

그후 아버지는 념안반일유격대를 기간으로 하여 동북인민혁명군 제5군을 건설하였는데 거기에는 주석님의 원정대와 더불어 북만의 눈깊은 산야를 누비며 전투적우의를 두터이하던 반일부대들이 거의다 편입되였다고 한다.

주석님께서서 올리신 공동항일의 총성이 그들모두를 항일구국의 대격전장으로 모여들게 한 신호로 되었던것이다.

1935년 5월말 아버지는 김일성주석님께 또다시 장문의 편지를 띄워보냈다.

그해 7월 두번째로 로야령을 넘어오신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산동툰 로친구에서 아버지와 반갑게 상봉하시였다.

주석님께서서는 부상자리를 깨끗이 완치하고 5군 군장으로 취임한 아버지를 열렬히 축하해주

시였다.

제2차 북만원정과정에도 주석님의 친솔부대는 북만의 항일무장부대들과 더불어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련이어 벌어진 전투들을 통하여 주석님께서서는 중국인부대들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던 액목땅에 혁명열기를 세차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이 시기를 회상할 때마다 아버지는 1936년 2월에 있는 경박호반전투를 특별히 감명깊게 이야기하군 하였다.

그동안 북만의 산야를 주름잡으시며 반년남짓이 군사정치활동을 벌여오신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황니하자의 수림에서 제2차 북만원정의 최종목적지인 남호두로 떠나실 차비를 하고계시였다.

그무렵 경박호반에서는 아버지의 수하에 있던 평남양항일유격대가 열흘나마 일본군 1개 사단과 정안군을 상대로 피어린 격전을 벌리고있었다. 수적으로나 무장장비로나 훨씬 우세한 적과 맞선데다가 전투지휘도 걸려 아군의 손실이 약차하였다.

아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적군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북호두쪽에서 련속 파도식으로 공격해왔다. 만일 경박호대안의 진지를 적들에게 빼앗긴다면 5군지휘부가 자리잡고있는 팔도하자 근거지가 봉락될 위험이 있었다.

놈들이 입에 게거품을 물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목적도 갓 태어난 5군무장력을 무너뜨리고 청소한 북만혁명의 씨앗을 짓밟개버리려는데 있었다.

필자는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후보중의 딸임 (다음호에 계속)

* * *

명종파분자들은 큰 나라에 추종하면서 당의 사상과 정책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수정주의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는 사상적으로 완전히 결별하여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시고 수령의 사상옹호의 비타협적이며 원칙적인 투쟁에 나서시었다.

주체45(1956)년 5월 어느날 평양제1중학교에서는 당 제3차대회에서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전망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다.

그때로 말하면 반당종파분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면서 뒤에서 갖은 쓸라닥질을 다하던 시기였다.

이날 강사로 출연한 학교교장도 반당종파분자였는데 그자는 우리 나라는 3년간의 전쟁을 겪은 데다가 땅덩어리도 작기때문에 술한 자금과 로력이 드는 자동차나 트랙토르, 선박과 같은것을 만들어내는 큰 기계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을 외국에 많이 팔아 기계를 사다 쓰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고 력설하였다.

강사의 발언을 심중하게 듣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나 트랙토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것은 아버지원수님의 사상과는 완전히 어긋난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을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제시하시었다, 그런데 기계들을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서 사다쓴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말해주기 바란다고 준렬한 어조로 들이대시었다.

말문이 막힌 강사는 삽시에 얼굴이 벌개지면서 한참동안이나 헛기침을 하며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훔치다가 황망히 연단에서 물러났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연회장을 나서시며 학생들에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원수님의 사상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아버지원수님

께서는 우리 나라가 제발로 걸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공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기계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 힘으로 기계도 만들고 공장도 세워서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이께서 대학시기에 높이 추켜드신 당적사상체계확립의 기치, 1960년대 중엽이후에 추켜드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기치는 곧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을 절대화하며 영원한 사상적기치로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을 이끌어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을 영원히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투철한 신념이였다.

그이께서는 수령에게 충실한 제자는 무엇보다 수령의 사상에 충실하여야 하며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수령의 사상에 대한 신조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어야 한다고 확신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이후 제시하신 구호는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을 내세우며 그를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단 한치의 편차도 없을것이라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과 영결을 하루 앞둔 주체 83(1994)년 7월 18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들에게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실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우리들모두가 수령님과 함께 숨쉬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살며 수령님의 념원과 지향을 안고 그이의 교시를 관철해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수령님의 사상을 100% 계승해야 한다,

이것이 영원하고 철저하면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는것으로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신념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제시하신데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우리 당의 기본구호로 제정해주시었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3(1994)년 11월 어느날에도 우리 인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제일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이다, 우리 민족이 살아나가자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또 언제인가는 수령님은 서거하시었지만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영생불멸합니다, 수령님께서 영생하신다는것도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이 영생불멸하고 수령님께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라고 하는것이 좋습니다라고 가르쳐주신 장군님이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내세우시였기에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이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리론들을 자신의 존함으로 부르려는 일꾼들에게 나의 사상이자 수령님의 사상이라고, 나의 사상을 과고들어야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 나올것이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던것이다.

오직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100%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충실한 제자의 자세와 립장, 바로 여기에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가 있으며 그이께서 우리 시대를 향도하는 령도자로서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해오실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었다.

《나는 앞으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면서 력사적으로 하신 교시를 몇백, 몇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버이수령님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있는 그날에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교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사, 참된 제자의 불변의 신조로 력사에 길이 아로새겨져 빛날것이다.

2)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인 주체사상 100년사상사 총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라는것은 이미 널리 공인된 사실이다.

세상사람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에 접하고 그이의 사상과 리론이야말로 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찬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화발전시켜오신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나날이 늘어나 현재 세계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중심으로 4개의 대륙별 주체사상연구조직과 27개의 전국위원회, 1 000여개의 연구소조가 결성되어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따라 배워야 할 사상이며 조선에서 탄생하였다고 하지만 인류의 사상, 세계적인 사상이다.》, 《김정일각하는 위대한 김일성주의자이시며 철학의 대가이다.》, 이것은 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 노우에 슈하찌나 빠나마종합대학의 력사철학교수 에레라 깔릭스의 심정만이 아니다.

건전한 리성과 과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진보적인류의 공통의 심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올린 선물



마노공예품

주체101(201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평화리사회 위원장이 드린 선물이다.

그는 브라질에만 있는 독특한 천연돌인 마노로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는 글을 새긴 공예품을 만들어 선물로 올릴것을 결심하고 빠라나주에 직접 가서 마련하였다.

마노는 색깔이 다양하며 쉽게 부식되거나 변색되지 않는다.

선물에는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반제투쟁의 수령, 세계인민들의 벗, 평화의 수호자, 쏘코호 고메스, 세계평화리사회 위원장, 브라질, 썬 빠울로, 2012년 4월 15일》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세계평화리사회 위원장은 선물을 올리면서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나는 이번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못 잊어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마음을 담아 그이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삼가 이 선물을 드린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린 선물



유리공예 《김정일화》

주체99(2010)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에서 드린 선물이다.

선물은 여러가지 색깔의 유리 와 금속띠로 만들어졌다.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는 선물을 전달하면서 《유리공예품에 형상되어있는 7송이의 김정일화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에서 나오는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악단은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그리움을 안고 이 노래를 무대에 올리곤 하였습니다. 때문에 나는 이번 조선방문을 앞두고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우리 악단 전체 성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모스크바거울제작소에 선물도안을 주고 가장 우수한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많은 품을 들여 선물을 완성하였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 우리모두의 마음이 담긴 이 선물을 꼭 전달해드릴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훈장보존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훈장보존실에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과 세계 78개 나라, 13개의 국제기구 및 단체들에서 드린 406개의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이 보존되어있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새 역사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의 인민과 군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와 3차의 공화국영웅칭호, 1차의 로력영웅칭호, 26개의 훈장과 3개의 메달을 삼가 드리였다.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마음을 담아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수많은 나라, 국제기구 및 단체들에서는 77개의 훈장과 154개의 메달, 142개의 명예칭호를 삼가 드리였다.

그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인류의 태양을 못 잊어 그리며 삼가 드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도 많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훈장보존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훈장보존실에는 조선과 세계 61개 나라, 9개의 지역, 국제기구 및 단체들에서 드린 443개의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이 보존되어있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시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조선의 인민과 군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와 4차의 공화국영웅칭호, 4개의 김일성훈장, 2개의 김일성상, 22개의 훈장과 9개의 메달을 삼가 드리였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대륙과 대양을 건너 수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 및 단체들에서 40개의 훈장과 143개의 메달, 219개의 명예칭호를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따르는 인류의 다함없는 마음은 끝이 없어 그이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을 계속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었다
주체109(2020)년 3월

혁명일화

꼭 하고 싶으셨던 일

모든것이 너무도 황홀하여서 보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감탄과 행복감을 금치 못하는 류경안과종합병원에는 위대한 아버지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 있다.

주체105(2016)년 5월 어느날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각종 비품들, 안경상점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해결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해주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완공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류가 드리는 최고의 지성

오늘 조선은 시대와 역사의 앞길을 밝히며 만사람에게 자주정신을 안겨주는 위대한 사상의 발상지,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시대와 역사우에 높이 솟아있다.

주체사상의 조국.

주체사상은 수천년동안 인류의 예지가 도달한 사상리론의 총화나 집대성보다 더 높은 혁명사상의 최고봉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20세기의 걸출한 위인,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인류사상사를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사상리론가는 일찌기 없었다.

그이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세계관을 천명하고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 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방법, 그 지도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 나라와 민족의 제일생명으로 규정하고 당들사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의 력사적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주체사상의 진리성에 탄복하고 열렬한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스승으로 우러르면서 그이께 지성어린 선물들을 삼가 드리였다.

독실한 신자로부터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가 된 《국제김일성상》 리사회 서기장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였던 비슈와나는 주체66(1977)년 9월 2kg의 순은으로 만든 귀중품함과 자기가 집필한 도서 《태양은 우리를 고무하네》를 비롯한 여러점의 선물들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 태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것과 같이 주체의 태양 김일성각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오늘 만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요구로 되었으며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를 따르는 목소리는 하늘땅에 차넘칩니다.》라고 말하였다.

선물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고 자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려는 그들의 결의가 담겨져있으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 두터운 친선의 정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현시대뿐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념원을 끝까지 실현할 때까지 영원히 막을수 없는 거창한 흐름이다.

력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세울수 없듯이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시대의 이 도도한 흐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창조와 건설의 거장으로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였다.

인류력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펼치시며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해방의 구성》,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 《천하명장》, 《만고의 영웅》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그 마음을 그이께 올리는 선물들에 담았다.

주체45(1956)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정부에서는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

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범가죽을 삼가 드리였으며 주체82(1993)년 4월 싱가포르실업가대표단은 위대한 수령님께 대원수복을 입으신 영상작품을 선물로 드리였다.

선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세기의 위인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우러르고 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웅변으로 실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시고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며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이라는것을 확증하시고 20세기 력사의 흐름을 자주의 길로 이끄시였다.

력사에는 인류해방위업과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한 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령도하신 력사로 보나 그 장구한 기간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보나 위대한 수령님을 따를만한 위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그이를 《인류해방의 구성》,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세계혁명의 기수》로 높이 우러르며 그의 고귀한 업적을 칭송하는 마음을 담은 뜻깊은 선물들을 그이께 삼가 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돛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야씨

르 아라파트는 세계평화와 안전수호에 쌓아 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금속공예 《진정한 평화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를 선물로 드리였으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도 그이를 세계적인 위인, 전세계혁명가들의 진정한 스승으로 열렬히 흠모하면서 그이께 지성어린 선물들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진보적인류가 드린 선물들마다에는 수령님을 세계적인 령도자로, 20세기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으로 우러르는 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와 최대의 지성이 어려있다.

세계 5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기들의 지성이 담긴 선물들을 드리였다.

그이께 드린 선물들은 그 규모와 내용, 가치와 예술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제작에 바쳐진 성의에 있어서 그 어느 선물과도 대비할수 없다.

새 세기 인류의 따뜻한 봄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일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중국의 일류급미술가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그린 중국화 《광춘》,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정중히 형상한 미국선군정치연구소조에서 드린 유리공예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세계의 여러곳에서 구입해온 갖가지 색깔의 천연조가비들을 억만개로 쪼개고 다듬어 태양이 솟아오른 백두산의 장엄한 해돋이를 송엄하

게 형상하여 인류의 찬란한 미래가 백두산에서 밝아온다는것을 보여준 홍콩의 어느 한 총사장일행이 드린 자개공예 《백두산의 해돋이》 등 많은 선물들은 그이를 우러르고 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웅변적으로 실증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진정과 다함없는 성의가 깃들어있는 한점한점의 선물들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령도업적, 고매한 품모를 높이 칭송하며 그이께서 언제나 건강하시여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던 인류의 뜨거운 념원이 담겨져있다.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모시고있는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최대의 영광이고 최상의 행복이며 더없는 자랑이다.

정의와 진리,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운은 시대와 력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데 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심으로써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 전인류가 드리는 만민칭송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를것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천추만대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 * *



조선로동당창건 75돐 성대히 경축

조선에서 온 나라 인민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속에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쳐흘렀다.



10월 10일 0시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걱정에 넘치신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레없이 혹독한 격난을 뚫고 헤치며 일심전력하여 마





련한 값진 성과와 승리를 안고 위대한 10월 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내인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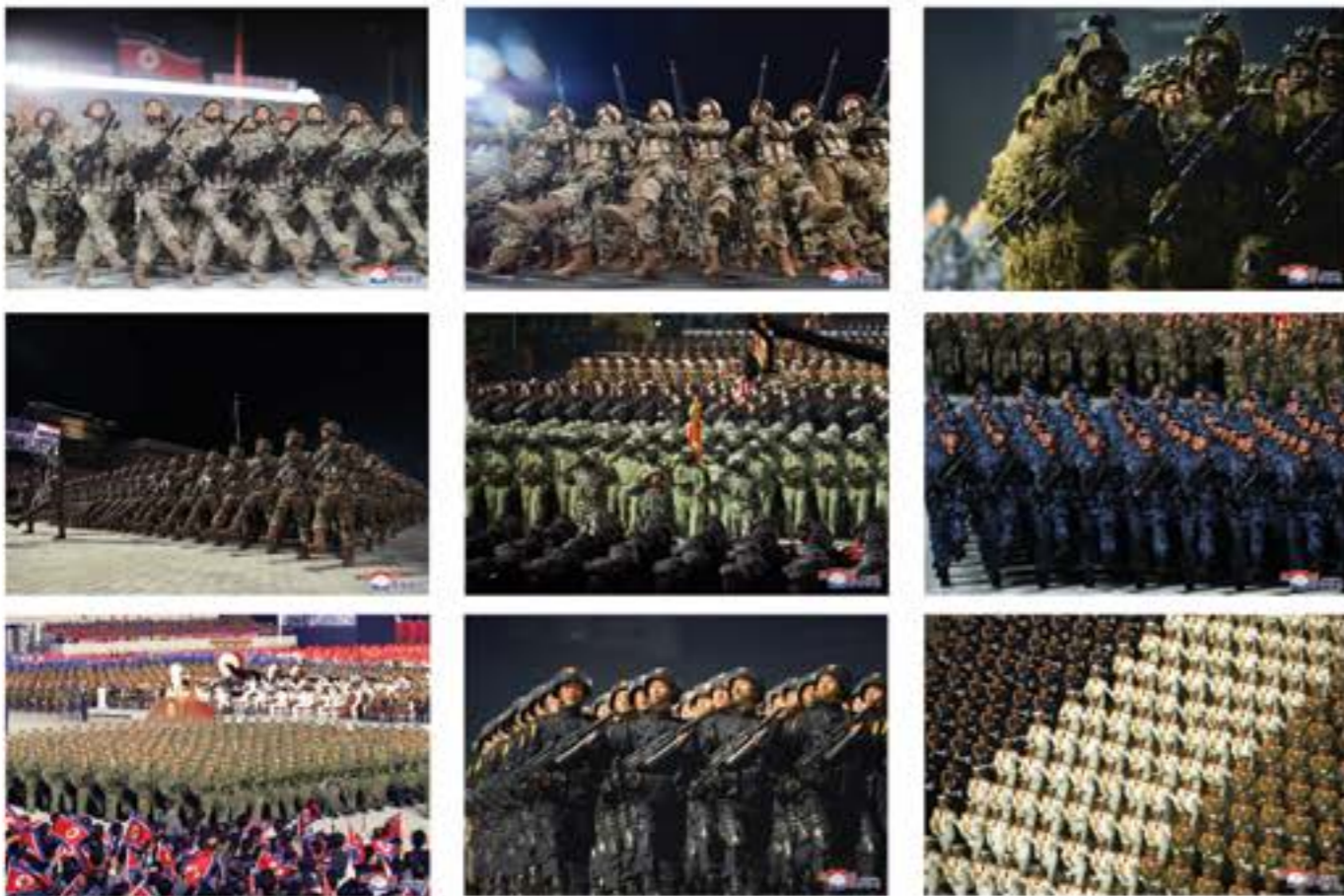
인민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진정어린 믿음이 구절구절마다에 뜨겁게 넘쳐흐르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연설을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아버이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이어 열병행진과 열병비행, 열병진군이 진행되였다.

발걸음드높이 광장을 누비며 행진해나가

는 열병대원들과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주체식최첨단전략무기들을 보면서 관중들은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돛경축 열병식은 세계적 인 군사강국을 일떠세워 부국강병의 세기적 대업을 이룩한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이 길이 빛날것이며 사회주의의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돛경축 군중시위가 10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당을 령도적정치조직으로, 어머니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세기적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전체 참가자들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돛경축 군중시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일심단결의 힘, 새로운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 제8차대회를 향하여,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진군해나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또한 청년전위들의 화불행진이 진행되었다.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행진해가는 청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혁명의 명맥을 줄기

차게 이어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끓어
넘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들이 성대히
거행된 수도 평양에서 10월 10일 저녁 축포야
회가 진행되었다.
눈부신 불의 세계가 하늘가를 아름답게 물들
이는 속에 김일성광장에서는 환희에 넘친 군중
들이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였다.

온 나라 도처에 솟아난 문명의 별천지들과
대재앙의 흔적을 털어버리고 홀룡하게 일떠
선 사회주의선경마을들에서 만발하는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꽃을 형상한 불꽃들이 련이어
터져오르고 기쁨과 열정의 춤물결이 끝없이
이어졌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참가자들 다함없는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체 108(2019)년 10월 7일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다함없는 경모의 정 표시를 하고 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할 것이다》라는 글발이 모셔져 있었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참가자들 송고한 경의 표시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참가자들이 주체108(2019)년 10월 10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았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 토마스칼리히테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 사회주의위업과 인민의 행복,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한것으로 하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며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나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을 때마다 위인들에 대한 송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고 말하였다.



토마스 칼 리히테르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의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가 주체108(2019)년 10월 7일 평양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기금리사회성원들과 기금회원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김일성김정일기금사무국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3차확대회의이후 지난 2년간의 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선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며 기금사업을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사업방향이 통보되었다.

새로 선거된 리사, 명예리사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었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기금활동소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의 참가자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의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들과 선물을 올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기금 단동지부가 선물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들과 선물이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장에게 전달되였다.



최룡해동지가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주체108(2019)년 10

월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에 참가한 기금리사회성원들과 기금회원들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관람, 여러곳 참관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참가자들이 주체108(2019)년 10월 8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를 관람하였다.

그들은 또한 국제친선전람관과 주체사상탑, 옥류아동병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양로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명예리사 최동문은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국제친선전람관

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흠모의 마음들이 집대성된 위인칭송의 보물고이다. 나는 앞으로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기금리사회의 명예리사가 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성선전과 기금선전을 적극 벌려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최동문

-기금활동소식-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참가자들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기금활동소식-



옥류아동병원 참관



평양양로원과 우의탑 참관



주체의 최고성지로 달리는 인류의 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소중히 안고사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지성은 오늘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끝없이 흐르고있다.

주체108(2019)년 8월 조선을 방문한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대표단 성원들은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김일성김정일기금에 기부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금 기부증서를 수여받는 자리에서 단장인 다갈 쉐렌드라 프라싸드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돌아보면서 궁전이 훌륭히 꾸려지고 잘 유지관리되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해당 일군들로부터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이 설립되었으며 여기에 외국인들도 기부할수 있다는 말

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기부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금에 기부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은 조선의 수령들이실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수령들이시기때문이다.

앞으로 조선을 방문하는 네팔사람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며 김일성김정일기금에 기부하도록 영향을 주겠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심을 간직하고 기금사업에 헌신하는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비록 중국사람이지만 오래전부터 조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있으며 조선의 선대수령들과 특히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하여 탄복을 금치 못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모



다갈 쉐렌드라 프라싸드

시기 위한 사업에서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

날을 따라 회원대렬이 늘어나는것은 기금이 발전하며 조선의 미래가 창창하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지난해 10월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에 참가하였던 중국의 벗들이 자기들의 소감에 대하여 이야기한것이다.

이들만이 아니다.

채중동포인 지명화녀성은 김일성김정일기금 기부증서를 수여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



지명화

는 사업에 나도 자그마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한다.

오늘 기부증서를 수여받은 공지를 가슴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조국의 룡성발전에 적은 힘이 나마 이바지하겠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은 언제나 금수산태양궁전과 잇닿아있으며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열기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것이다.



심장깊이 새겨지는 나라이다

밝고 명랑한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과 문명하고 깨끗한 거리들은 조선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주체108(2019)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4차확대회의에 참가한 중국의 왕리는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옥류아동병원이 아동심리에 맞으면서도 최상의 의료설비를 갖춘 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비가 역수로 내리는 날까지 공사현장을 찾으시여 현대적인 아동전문병원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아버지와도 같은분이시다.

여기서는 무상치료를 해주고 병치료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을 앞날의 주인으로 키우려는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노래공부도 하고 있으니 그들의 건강이 더 빨리 회복될 것이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 김선은 월향기념품전시장을 참관하면서 조선의 개성고려인삼은 그 약효능이 으뜸으로 평가되어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하다, 그렇기때문

에 개성의 명산물인 인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들의 가치 또한 이를데 없이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진귀한 제품들을 인민을 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녕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아니고서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주체108(2019)년 4월 조선을 방문한 김일성김정일기금 웰남회원일행은 자기들의 소감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에 직접 와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80여개 나라들에 가보았으나 이렇게 깨끗한 나라를 본적이 없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 볼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일생 조선에서 살고 싶다. 평양시민이 될 수 있다면 조선에서 훌륭한 총각과 결혼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

나는 나의 마음속진심을 말하고 싶다.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온다. 그토록 인민을 사랑하는 령도자를 모신 당신들, 조선사람들이 부럽기 때문이다. 조선은 령도자도 제일, 사람들도 제일, 도시의 깨끗함도 제일이다. 나의 심장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내가 본 나라들중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이다.



김 선



왕 리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은 끝없이 흐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성원들과 회원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로 동당창건 7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 리사회 공동리사장 조니 혼, 명예부리사장 새 철군, 리사 김선, 명예리사들인 최동문, 구견 량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김일성김정일기 중국 단동지부와 기금회원들인 량정용부부, 량정용부부, 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꽃바구니들의 땡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성원들과 회원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6돐에 즈음하여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조니 혼,



명예부리사장 새철군, 리사 김선, 명예리사들
인 최동문, 구수파, 구견량과 기금회원들인
림근남, 량정웅부부, 전학염, 리애란, 조빈,
리정원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또한 조국해방 75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5

돐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 스웨
플라나 오진쑈바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국기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표식하고 상징하는 기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그 형태에서나 거기에 담긴 내용에서나 그 어느 나라것과도 다른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국기의 붉은색은 선렬들이 흘린 붉은 피와 단결된 인민의 위력을 상징한다.

국기의 흰 동그라미와 두개의 흰 폭은 공화국이 참다운 인민의 나라라는것과 함께 조선민족이 한강토에서 하나의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한 민족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

국기의 아래우에 있는 두개의 푸른 폭은 공화국의 휘황찬란한 미래, 세계평화와 진보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기의 붉은 오각별은 공화국이 계승한 혁명전통과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인민의 혁명적기개, 영원히 번영할 공화국의 밝은 앞날을 상징한것이다.

주체37(1948)년 7월에 제정된 람홍색국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과시하며 높이 휘날리고 있다.



주체사상탑을 참관하는 김일성김정일기금 리사회 제4차확대회의 참가자들



뒤표지: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축포야회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오탄동
전화번호(Tel): +850-2-18111Ext381-8133
화 스(Fax): +850-2-381-4503
전자우편(E-mail): kkf@star-co.net.kp
www.naenara.com.kp/sites/kkf/